

東武 李濟馬의 心慾과 性情에 관한 考察

황민우·이수경·고병희·송일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Abstract

A Study on Inclination of Mind(心慾) and Nature & Emotion(性情)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Hwang Min-Woo·Lee Soo-Kyung·Koh Byung-hee·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

1. Objectives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find Lee Je-Ma's thought on Inclination of Mind(心慾) and Nature & Emotion(性情), through summarizing sentences related to Inclination of Mind(心慾) and Nature & Emotion(性情) proposed in the chief writings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 Methods

It was researched bibliologically with Lee Je-Ma's chief writings such as 『Gyukchigo (Draft on Inquiring the Properties of Things, 格致藁)』, 『Dongyi Suse Bowon Sasang Chobongyun(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Dongyi Suse Bowon (Longevity and Life Preservation in Oriental Medicine, 東醫壽世保元)』.

3. Results and Conclusions

(1) Lee Je-Ma's Mind(心) is the dimension of the Great Absolute(Taegeuk, 太極), and is related with Benevolence-Righteousness-Propriety-Wisdom(仁義禮智)

(2) Human being is classified Taeyangin(太陽人), Taeumin(太陰人), Soyangin(少陽人), Soeumin(少陰人) by SungLi(性理), and The Mean(鄙人), The Weak(薄人), The Avaricious(貪人), The Sycophantic(懦人) by JungYok(情慾)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3) Nature & Emotion(性情) of Sorrow-Anger-Joy-Pleasure(喜怒哀樂) is divided into two function. One is native function related with SungLi(性理), the other is acquired function related with JungYok(情慾). Also all two native and acquired function is related with Benevolence-Righteousness-Propriety-Wisdom(仁義禮智).

(4) The Mean(鄙人), The Weak(薄人), The Avaricious(貪人), The Sycophantic(懦人) may be defined as the state of Inclination of Mind(心慾) of Taeyangin(太陽人), Taeumin(太陰人), Soyangin(少陽人), Soeumin(少陰人) by function of acquired Emotion(情).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Inclination of Mind(心慾), Nature & Emotion(性情)

I. 緒 論

四象醫學에서는 人間을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으로 구분하여 각 체질의 취약점에 따라 生

理, 病理, 養生에 관하여 차등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고 치료한다. 東武公은 인간의 구분을 그의 저서인 『格致藁』,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 등을 통해 心慾에 의한 鄙薄貪懶人和 臟理에 의한 太少陰陽人을 제시하고 있으며, 鄙人, 薄人, 貪人, 懦人을 각각 太陽人,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으로 설명하고 있다.¹⁾

四象醫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鄙薄貪懶人을 구분

접수일 2004년 7월 10일; 승인일 2004년 8월 10일

교신저자 : 송일병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과

Tel: +82-2-958-9233 FAX : +82-2-958-9234

E-mail : ibsong@khmc.or.kr

짓는 心慾과 太少陰陽人의 生理, 病理, 養生을 설명하고 있는 喜怒哀樂의 性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들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개념 정립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東武公의 독창적인 개념과 관점으로 인하여 心慾과 性情의 개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기존에 四象醫學의 心慾과 性情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 논문들이 다수 있다. 이들 논문들은 접근 방법상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존 儒學과 韓醫學의 개념과 대비하여 東武公의 心慾과 性情을 해석하려는 접근 방법^{6,7,8,9,10,11,12,13,14}이고, 둘째, 東武公의 저서를 중심으로 東武公의 心慾과 性情에 관한 개념과 生理, 病理, 養生에 관련한 이들의 작용 기전을 해석하려는 접근방법^{15,16,17,18,19,20,21}이고, 셋째, 東武公의 心慾과 性情을 현대 의학적인 관점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접근방법²²이 있다.

이러한 기존의 고찰을 통하여 다음 두 가지와 같은 공통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첫째, 기존 儒學과 韓醫學의 개념과는 달리 東武公은 독창적인 방법과 해석으로 心慾, 性情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둘째, 東武公의 心慾과 性情은 철학적, 의학적인 접근의 주요한 용어이며, 이를 통하여 太少陰陽人의 生理, 病理, 養生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心慾과 性情과 관련하여서는 鄙薄貪懶人과 太少陰陽人의 情氣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 儒學과 韓醫學의 개념은 염두에 두지 않고, 東武公의 저서를 중심으로 心慾의 개념, 性情의 개념, 心慾과 性情의 관계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II. 本 論

1)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第一統」

1-5 人趨欲心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鄙人(太陰人) 棄義而偷逸者 名曰懦人(少陰人) 棄智而飾私者 名曰薄人(少陽人)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太陰人).

(이하의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의 조문번호는 李濟馬 原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집문당, 서울, 2003.에 준함.)

東武 李濟馬는 그의 철학서라고 할 수 있는 『格致藁』와 의학서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을 통하여 자신만의 독창적 방법과 시각으로 철학적 바탕으로 四象醫學의 원리를 발전시켰다.

東武公은 철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格致藁』 「反誠箴」²⁾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³⁾에서 밝히고 있듯이 太極之心, 兩儀之心, 四象之心을 기본 구조로 인식의 본체로 삼았다.

東武公은 『格致藁』 「儒略」에서 事心身物이라는 四象의 개념으로 儒學을 재해석하였으며, 「反誠箴」에서는 「正己」를 강조하였으며, 「獨行篇」에서는 「知人」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신이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을 통해 治心治病, 醫學的 正己, 生活的 正己로 발전하게 된다.⁴⁾ 東武公의 사상의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東醫壽世保元』을 통하여 心慾과 性情으로서 인체의 生理, 病理, 治法, 治方, 養生에 이르기까지 모두 철학적인 접근과 동일한 틀, 즉 太極, 兩儀, 四象의 구도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東武公의 철학이나 의학적인 접근은 모두 太極之心, 兩儀之心, 四象之心의 구조 아래에서 心慾과 性情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면에서 四象醫學의 본질적인 핵심은 바로 인간의 心慾과 性情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道德律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四象醫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개념이 東武公의 心慾과 性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창적인 개념과 사고와 기존 儒學과의 개념 차이로 인하여 여전히 난해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2) 『格致藁』 「反誠箴 巽箴」

太極之心 中央之心也 心身之心 兩儀之心也 事物心身之心 四象之心也 易繫辭之乾坤 以兩儀之乾坤言之也 八卦之乾坤 以八卦之乾坤言之也 六十四卦之乾坤 以六十四卦之乾坤 言之也 中央之心 兩儀之心 四象之心 亦類此也 統而言之 則六十四卦 皆太極也 六十四卦之 三十二卦 皆乾也 八卦 皆心也 不必執一而置疑也.

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第四統」

4-4 天生萬物 有物有則 人形物也 人性則也 以人形其人性 有物有則 一而不二者 謂之太極.

4-5 性有性用 性用知也 形有形用 形用行也 一知一行 一生一成 易簡相得者 謂之兩儀.

4-6 知有舒卷 舒而決 卷而覺也 行有進退 進而動 退而止也 一決一覺 一動一止 一舒一卷 一進一退 變靜動化者 謂之四象.

4) 사상의학.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집문당, 서울, 2004:46-50.

여기서는 먼저 東武公이 그의 저서를 통해 언급하고 있는 心慾에 대한 고찰, 그리고 心慾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 性理에 대한 고찰을 하겠으며, 이어서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개념과 작용원리에 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心慾과 性情의 관련성에 관하여 고찰하는 순서로 서술하고자 한다.

1. 東武公의 心性心慾에 관한 고찰

(1) 東武公의 心性和 心慾은 太極의 차원이며, 仁義禮智와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다.

心性心慾의 문제는 『格致藁』에서 “太極之心 中央之心也”이라고 하였으며, 『東醫壽世保元』에서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라고 하여 太極의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太極之心의 본질적인 속성은 心性으로 仁義禮智 四德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발현된 仁義禮智 四端을 버리게 되면 私放逸欲의 心慾으로 鄙薄貪懶人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 心性和 心慾을 내부적으로 속성을 언급할 경우에는 四象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즉 心慾 안에서 仁義禮智와 私放逸欲 등의 四象의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東武公이 언급한 心性, 心慾에 관한 내용을 그의 저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格致藁』에서 事心身物 四象의 四端, 用, 慾은 모두 仁義禮智와 私放逸欲의 개념 확대로 설명하고 있으며, 鄙薄貪懶 또한 仁義禮智와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格致藁』 「儒略事物」에서 “어리석은 나 후학이 생각해 보니 옛날의 성인께서 말씀하실 적마다 반드시 仁義禮智를 일컬으신 것은 진실로 一身의 귀중한 보배라 잠시도 잃을 수 없다고 여기신 까닭이다. 후인들이 私心으로 헤아리되 公에는 利하나 私에는 不利한 것 같이 여겨 그것을 배반하니, 아 슬프도다! 어찌 성인께서 너희 후생들을 속이겠는가?”⁵⁾라고 언급하여 事心身物의 四端, 用, 慾이 모두 仁義禮智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格致藁』 「儒略」에 의하면 仁義禮智 四端의

慾인 私放逸欲에 의하여 齷詐侈懶의 心이 생기기도 하고 勤能慧誠의 善함도 생긴다고 하였다. 「儒略事物」에서는 仁義禮智, 謹能慧誠, 私放逸欲, 齷詐侈懶는 사회적 자이나 개인적 자아에서 발현하는 心에 대한 기술이다. 「儒略觀仁」에 의하면 齷詐侈懶가 섞이면 謹能慧誠이 지장을 받고, 驕矜伐夸가 작용하면 智禮義仁이 지장을 받는다. 즉 「儒略事物」의 私放逸欲之心을 驕矜伐夸之心과 齷詐侈懶之心으로 분류하였다.⁶⁾

여기서 私放逸欲之心은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러 鄙薄貪懶人과 太少陰陽人의 情氣에 설명하는 과정 중에 언급된다. 驕矜伐夸之心은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러 「性命論」의 天人性命 중 性齷(知)에 해당하는 頤臆臍腹에 있는 私心인 驕矜伐夸之心으로 이어지고 있다. 許侈懶之心은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러 「性命論」의 天人性命 중 命(行)에 해당하는 頭肩腰臀에 있는 慾心인 奪侈懶竊之心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되나,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格致藁』에서 언급된 事心身物과 『東醫壽世保元』에서 언급된 天人性命에 대한 해석과 관련성에 대해서 이번 考察에서는 論外로 하겠다.

이상에서 언급된 心慾에 관한 내용을 事心身物과 仁義禮智와 관련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Nature and Inclination of Mind in 『Gyukchigo』 (『格致藁』에서의 心性和 心慾의 구분)

事	智	私	齷	驕
心	禮	放	詐	矜
身	義	逸	侈	伐
物	仁	欲	懶	夸

宋⁷⁾에 의하면 “東武公은 『格致藁』 「儒略」에서 知人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東武公은 心慾을 설정하여 性和 慾으로 크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心을 仁義禮智의 性和 鄙薄貪懶의 慾으로 나누어 君子之心과 小人之心으로 설명하고 이를 知人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知人의 과정 중에서 규정한 心慾은 뒤에 “體質의 心慾論”으

5) 『格致藁』 「儒略事物」
昧昧我 後蒙思之 古之聖人 言必稱仁義禮智者 誠以一身重寶 不可失也 後人私心 揣之以仁義禮智 有似利於公 不利於私然而叛之 嗚乎 聖人豈欺汝後生乎.

6) 손상곤, 송일병. 동무 이제마의 심신관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9(2):1-10.
7) 송일병. 사상인의 체질병증약리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0(2):1-14.

로 발전하고, “體質의 知人論” 즉 “四象體質論”이 나오게 된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格致藁』 「獨行篇」에서 ‘知人’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사람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서 心慾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고, 그 心慾은 仁義禮智의 德性和 대비시켜 ‘鄙薄貪懶’라는 개념으로 요약하고 있다.⁸⁾

요약하면 東武公은 心性和 心慾을 모두 仁義禮智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동무공은 인간을 性理와 情慾의 兩儀 心身の인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格致藁』 「獨行篇」에서 東武公은 知人の 방법을 제시하면서 性理와 情慾의 兩儀 心身の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格致藁』 내에서 뿐 아니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 『遺藁抄』 등에서도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다. 東武公의 저서 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수 있으며, 이 가운데 대표적인 언급에 관해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格致藁』 「獨行篇」에서 懿德과 善才를 언급하고, 이어서 私慾을 언급하고 있는데⁹⁾, 才德은 性이고 理이며 所同한 것이라 하였고, 私慾은 情이고 慾이라고 언급하면서 所獨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⁰⁾

8) 사상의학. 전국한의학대학교 사상의학교실. 집문당, 서울, 2004:99.

9) 『格致藁』 「獨行篇」

曰 詩云 天生蒸民好是懿德 孟子曰 若夫爲不善 非才之罪也 人之才德出於何 而莫不善懿者 可明言耶.

曰 惻隱之心 出於肺 辭讓之心 出於脾 羞惡之心 出於肝 是非之心 出於腎 是故 凡人之有肺脾肝腎者 不修則己 若修之則皆懿德也 四聽之達 出於耳 四目之明 出於目 中禮之言 出於口 中禮之貌 出於鼻 是故 凡人之有耳目口鼻者 不修則己 若修之則皆善才也 曰 人之才德之所出 既聞之矣 又敢問 人之私慾之所出.

曰 人之慾 出於志意魂魄 人之私 出於屈伸動靜 大人之志意魂魄 以治國平天下爲心 故其精神氣血 深遠廣大也 細人之志意魂魄 以富家貴身爲心 故其精神氣血 淺近狹小也 大人之屈伸動靜 以誠心敬身爲身 故其身首股肱中規矩準繩也 細人之屈伸動靜 以放心懶身爲身 故其身首股肱不中規矩準繩也.

10) 『格致藁』 「獨行篇」

曰 中庸 曰君子之所不可及者 其惟人之所不見乎 人之所不見者 何耶.

曰 有皇上帝 降衷于下民 若有恒性 性者 理也 有藐下民 聽命于上帝 箇有真情 情者 慾也 理之未盡於性者 謂之才 才之分 有千萬等 而下愚以上 皆有才也 慾之不合於情者 謂之慾 慾之分 有千萬等 而中知以下 皆有慾也 是故 天下之人 猝然相遇 莫不相愛者 雖跖之

懿德과 善才는 君子之心에 해당하고, 私慾은 小人之心에 해당한다.

東武公은 『格致藁』 「反誠箴」에서 君子之心과 小人之心を 설명하면서 性理와 心慾을 대비시켜 설명하였다.¹¹⁾ 性은 善한 것으로 聖인과 君子 小인이 一同하며 易知하다고 하였고, 心은 善할 수도 있고, 惡할 수도 있으며 聖인과 君子 小인이 萬殊하며 難知하다고 하였다.¹²⁾

이러한 구도의 설명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 이르러 太少陰陽人の 臟局大小는 性情의 변화이며 一同하다고 하였고¹³⁾, 鄙薄貪懶人の 心慾은 私慾의 桎梏이며 萬殊하다고 하였다.¹⁴⁾

天下所成者는 그 理의 善을 明知하는 것이 德이고 性이라고 하였고, 一人所作者는 그 欲의 正을 誠行하는 것이 道이고 命이라고 하였다.¹⁵⁾

徒 亦能之也 無他才也 一室之人 歲月彌久 未免少疵者 雖孝悌者 亦難之也 無他慾也 盖才者 所同也 所同者 同成其利也 慾者 所獨也 所獨者 獨倖其利也 同成其利者 義之和也 衆人皆能之也 獨行其利者 亂之始也 君子獨不爲也.

11) 『格致藁』 「反誠箴·兌箴」

以一人之心而有君子之心焉 有小人之心焉 君子之心 易知 小人之心 難知 易知之心 多而難知之心 少者 名曰君子 難知之心 多而易知之心 少者 名曰小人.

12) 『格致藁』 「反誠箴·兌箴」

性純善也 聖人與君子小人 一同也 心可以善惡也 聖人與君子小人 萬殊也 性理也 未來也 聖人與君子小人 一同理於未來也 心慾也 見在也 聖人與君子小人 萬殊 欲於見在也 一同者 善也 一同 故易知也 萬殊者 惡也 萬殊 故難知也.

13)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第一統」

1-4 人稟臟氣 有四不同 肺大肝小者 名曰太陽人 肝大肺小者 名曰太陰人 脾大腎小者 名曰少陽人 腎大脾小者 名曰少陰人 註：肺強則肝弱 肝強則肺弱 脾強則腎弱 腎強則脾弱 互相盈縮 迭爲進退 參伍以變 錯綜其數 求之有道 得之有命 聖人與衆人 一同也.

14)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第一統」

1-5 人趨欲心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鄙人(太陽人) 棄義而偷逸者 名曰懦人(少陰人) 棄智而飾私者 名曰薄人(少陽人)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太陰人) 註：四德爲慾心所陷而 有一面廢棄者 有二三四面俱廢棄者 有右明而左暗者 有左明而右暗者 四德爲誠心所擴而 有一體充備者 有四體具微者 有善人信人者 有充實光輝者 有敢而參差 直而高低 問問自別 層層不同 問問參差者 衆人也 層層高低者 賢良也 聖人衆人 萬殊也 1-6 太少陰陽之兩偏長短 卽性情之變化 具天而盈縮者也 聖人與衆人 一同也 貪懦鄙薄之人 四隅漏缺 卽私慾之桎梏 其人暴棄者也 聖人與衆人 萬殊也.

1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第一統」

1-9 天下所成者 其理擴而難周 明知其理之善者 德也 性也 一人所作者 其欲膠着而易惑 誠行其欲之正者 道也 命也.

健剛柔順은 性理의 四偏이고, 喜怒哀樂 情欲의 四偏이다. 性理의 편급함은 이를 行하고 察中하면 求하고, 情欲의 편급함은 이를 行하고 察節하면 得한다.¹⁶⁾

東武公은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天人性命의 구도 안에서 好善之心, 惡惡之心, 邪心, 怠心을 언급하고 있다.¹⁷⁾ 이 중에서 耳目鼻口의 好善之心과 肺脾肝腎의 惡惡之心은 모두다 堯舜과 衆人이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하여 天機와 人事의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頤臆臍腹의 驕矜伐奪之心과 頭肩腰臀의 奪侈懶竊之心은 후천적인 存心養性, 修身立命을 통하여야 堯舜의 知行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니 堯舜과 衆人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性命, 즉 知行의 차원으로 설명하였다.¹⁸⁾ 이후에 언급된 慧覺, 資業은 性命, 知行과 관련된 것으로 후천적인 요소와 관련성이 깊다.

宋¹⁹⁾에 의하면 東武公은 上下左右의 時空間의 구도 속에서 上下의 事物과 天人은 時間的, 構成的, 天賦的, 先天的인 요소로 요약하고, 左右의 心身과 性命(知行)은 空間的, 機能的, 自律的, 後天的인 요소로 요약하였다.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의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責心”과 “心體之清濁”은 性命(知行)과 관련된 후천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고, “責氣”와 “氣宇之強弱”은 天人과 관련된 선천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臟理와 心慾으로 太少陰陽人과 鄙薄貪懶人을 구분하였다.²⁰⁾ 太少陰陽人과 鄙薄貪懶人의 구분은 각각 臟局의 大小와 心慾으로 구분된다. 東武公은 크게 兩儀 心身 차원으로 인간을 구분하였는데, 心의 차원에서 心慾으로 인한 鄙薄貪懶人을, 身의 차원에서 性情氣로 인한 臟局大小로 인한 太少陰陽人을 나눴다.

이러한 兩儀 心身 차원의 구분을 각각 설명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다. 太少陰陽人의 臟局大小는 天理之變化로서 天稟之已定의 四象의 차원으로 설명되며, 仁義禮智의 四臟之氣, 즉 四端이 擴充하게 되면 浩然之氣가 肺脾肝腎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鄙薄貪懶人의 心慾은 人慾之闊狹는 人事之修不修의 太極의 차원으로 설명되며, 鄙薄貪懶의 一心之慾, 즉 仁義禮智를 棄하고 私放逸欲으로 빠지는 것을 明辨하면 浩然之理가 心에서 나온다고 하였다.²¹⁾

하늘로부터 性으로 품부받은 仁義禮智의 性理(人性)는 인체에서 작용할 때 氣의 차원인 四端으로 작용하게 된다. 聖人이나 衆人의 臟理와 才能은 선천적으로 같은 것이며, 聖인과 衆인의 다른 것은 후천적인 心慾의 유무로 가려지게 된다.²²⁾

『格致藁』 「遺藁抄」²³⁾에서도 人心과 道心を

16)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原人第三統」
3-1 健剛柔順 性理之四偏也 喜怒哀樂 情欲之四偏也 性理之偏 行之而察中焉則 求也 情欲之偏 行之而察節焉則 得也.
17)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23 人之耳目鼻口 好善無雙也 人之肺脾肝腎 惡惡無雙也 人之頤臆臍腹 邪心無雙也 人之頭肩腰臀 怠心無雙也.
(이하 『東醫壽世保元』의 조문번호는 사상의학. 전국한의학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집문당, 서울, 2004.에 준함)
18)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25 耳目鼻口 人皆可以爲堯舜 頤臆臍腹 人皆自不爲堯舜 肺脾肝腎 人皆可以爲堯舜 頭肩腰臀 人皆自不爲堯舜.
1-26 人之耳目鼻口 好善之心 以衆人耳目鼻口論之而堯舜未爲加一鞭也 人之肺脾肝腎 惡惡之心 以堯舜肺脾肝腎論之而 衆人未爲少一鞭也 人皆可以爲堯舜者以此 人之頤臆臍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臀之下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人皆自不爲堯舜者 以此.
19) 송일병. 東武公의 學問과 哲學思想.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1-7.

20)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
2-2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 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 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 貪人.
21)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3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中央之太極 聖人之太極 高出於衆人之太極也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 旁通於衆人之四象也.
2-4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 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 鄙薄貪懦之心地清濁 四不同中 有萬不同 人慾之闊狹也 聖人與衆人 萬殊也.
2-5 太少陰陽之短長變化 一同之中 有四偏 聖人 所以希天也 鄙薄貪懦之清濁闊狹 萬殊之中 有一同 衆人 所以希聖也.
22)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6 聖人之臟 四端也 衆人之臟 亦四端也 以聖人一四端之臟 處於衆人萬四端之中 聖人者 衆人之所樂也 聖人之心 無慾也 衆人之心 有慾也 以聖人一無慾之心 處於衆人萬有慾之中 衆人者 聖人之所憂也.
2-7 然則天下衆人之臟理 亦皆聖人之臟理 而才能 亦皆聖人之才能也 以肺脾肝腎 聖人之才能 而自言曰 我無才能云者 豈才能之罪哉 心之罪也.

Table 2. The classification of SungLi and JungYok (性理와 情慾의 구분)

출전	구분	性理	情慾
『格致藁』	「儒略」	仁義禮智	私放逸欲
	「反誠箴」	君子之心	小人之心
	「獨行篇」	性理 懿德 善才	心慾 私慾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有上帝 降衷于下民 若有恒性	有藐下民 聽命于上帝 箇有眞情
		性情之變化	私欲之桎梏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天下所成者는 그 理의 善을 明知하는 것이 德이고 性	一人所作者는 그 欲의 正을 誠行하는 것이 道이고 命
		健剛柔順 性理之四偏	喜怒哀樂 情慾之四偏
		天人 / 天機(耳目鼻口) 人事(肺脾肝腎)	性命(知行) / 性(領臆臍腹) 命(頭肩腰臀)
		好善之心 惡惡之心 人皆可以爲堯舜	邪心 怠心 人皆自不爲堯舜
		極公 極無私	存心養性 修身立命 慧覺 資業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責氣 / 氣字之強弱	責心 / 心體之清濁
		人稟臟理	人趨心慾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鄙薄貪懶之清濁闊狹
		天理之變化 臟理 才能	人慾之闊狹 心慾
『格致藁』 「遺藁抄」		一同 / 天稟之已定	萬殊 / 人事之修不修
		道心	人心
宋一炳 東武公의 學問과 哲學思想		利理	欲義
		上下	左右
		事物 天人	心身 性命(知行)
		時間的, 構成的	空間的, 機能的
	天賦的, 先天的	自律的, 後天的	

언급하면서 欲義와 利理로 설명하고 있다.²⁴⁾

이상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格致藁』에서부터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東醫壽世保元』, 「遺藁抄」 등을 거치면서 인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철학적인 접근이나 의학적인 접근이나 모두 性理와 心慾의 관계로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性命, 道德, 知行的 관계로 설명이 가능하며, 이는 모두 兩儀心身的의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兩儀 心身を 요약해서는 太極之心인 私放逸欲

의 心으로 설명하고 있다.²⁵⁾ 兩儀 心身の 각각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四象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즉 心의 차원에서는 鄙薄貪懶人으로, 身의 차원에서는 太少陰陽人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鄙薄貪懶人과 太少陰陽人을 각각 四象의 차원으로 설명하는 주요한 도구로 이후에 고찰할 喜怒哀樂의 性情氣를 사용하고 있다.

2.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개념

전술한 心慾에 관한 고찰에서 東武公은 兩儀 心身的인 관점에서 性理와 情慾으로 나누고, 이를 근거로 太少陰陽人과 鄙薄貪懶人으로 구분하였다고 언급하였다. 東武公은 性理로 인한 선천적인 太少

23) 『東武遺稿』의 「言行」(李濟馬 著, 이창일 譯註. 東武遺稿. 청계출판사, 성남, 1999:86.)과 동일함

24) 『格致藁』 「遺藁抄」
(중략) 欲之極也 人心惟危 利之鑿也 道心惟微 欲恒過度 言必過度 利恒不及 人必不及 言若過度 行必不及 人若不及 己必過度 欲恒過度 義必不及 理若不及 利心過度 (중략) 存心養性 行必正大 修身立命 人必廣濟 精於利理 道平天下 一於欲義 德修一身. (중략)

25) 『格致藁』 「反誠箴」
身之實理 直行故 有前後而無左右 心之實理 廣濶故 有左右而無前後 若夫身之左右 橫放 心之上下 出沒 即私放逸慾之所致也 非擇乎中庸 允執厥中之上下左右也.

陰陽人과 情慾(心慾)으로 인한 후천적인 鄙薄貪懶人을 제시하고 있는데,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러 이들 각각을 설명하는 도구이자 이들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도구로 喜怒哀樂의 性情氣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喜怒哀樂의 개념에 대해서 이²⁶⁾는 ‘四象醫學의 의학적 설명 도구는 喜怒哀樂이다. 喜怒哀樂은 鄙薄貪懶와 달리 선악의 가치 판단이 들어있지 않으면서 氣의 升降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용적 설명 도구로 東武가 의학을 설명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였다. 四象醫學에서의 喜怒哀樂은 證治醫學의 陰陽五行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東武公은 초기에 『東醫壽世保元』에서 언급된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에는 『格致藁』에서 ‘自己獨得之性’, ‘與人相接之性’으로,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에서는 ‘安身’, ‘接人’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개념의 변천 과정에 관한 고찰은 論外로 하겠다.

(1) 선천적인 性理에 의한 喜怒哀樂의 性情氣와 후천적인 心慾에 의한 喜怒哀樂의 性情氣로 구분된다.

東武公의 그의 저서를 통해 언급한 喜怒哀樂의 개념에는 性으로 표현되는 喜怒哀樂, 情으로 표현되는 喜怒哀樂, 氣로 표현되는 喜怒哀樂이 있고, 그 외에도 心으로 표현되는 喜怒哀樂, 力으로 표현되는 喜怒哀樂 등이 있다.

喜怒哀樂의 性情氣는 크게 선천적인 性情氣와 후천적인 性情氣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²⁷⁾

性情氣의 개념에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喜怒哀樂의 性과 情은 모두 인체에서 발현되는 氣의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²⁸⁾는 “性과 情은 인체에 기능을 하는 것이나 性氣와 情氣는 이와 달리 太少陰陽人の 기운의 방향과 기운이 발현되는 현상을 표현하는 술어로 性情과 같이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性과 情, 性氣와 情氣는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

였다.

그러나 臟局의 大小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性과 情도 모두 氣의 작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太陽人の 경우 肺大肝小의 臟局을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哀性遠散, 怒情促急이라고 하여 性과 情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결국 氣注肺, 氣激肝의 작용을 하는 氣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⁹⁾ 후천적인 心慾의 차원으로 나오는 性情氣 또한 「四端論」과 「擴充論」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性과 情이 모두 氣의 형태로 표현된다.³⁰⁾ 이는 性情이 작용하여 인간의 몸에 작용하여 어떤 현상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氣로 설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東醫壽世保元』에서 표현된 喜怒哀樂의 性과 情은 모두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모두 氣의 개념을 포함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사려된다.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喜怒哀樂 性情氣의 작용에 따라 臟局의 大小, 즉 臟局 기능의 強弱이 정해지며, 이는 天稟之已定으로 性理와 情慾 중 性理의 차원이다.³¹⁾ 선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氣로 인하여 大한 臟局이 형성되고, 선천적인 喜怒哀樂의 情氣로 인하여 小한 臟局이 형성되게 된다. 東武公은 喜怒哀樂의 性情氣가 四臟에서 나온다고 하였다.³²⁾ 이러한 性情氣는 仁義禮智 四端을 바탕으로

29)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0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 哀性遠散 則氣注肺 而肺益盛 怒情促急 則氣激肝 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이하 생략)

30)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3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7 太陽之性氣 恒欲進而不欲退 少陽之性氣 恒欲舉而不欲措 太陰之性氣 恒欲靜而不欲動 少陰之性氣 恒欲處而不欲出.

3-9 太陽之情氣 恒欲爲雄 而不欲爲雌 少陰之情氣 恒欲爲雌 而不欲爲雄 少陽之情氣 恒欲外勝 而不欲內守 太陰之情氣 恒欲內守 而不欲外勝.

31)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0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 哀性遠散 則氣注肺 而肺益盛 怒情促急 則氣激肝 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 怒性宏抱 而哀情促急 怒性宏抱 則氣注脾 而脾益盛 哀情促急 則氣激腎 而腎益削 少陽之臟局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 喜性廣張 而樂情促急 喜性廣張 則氣注肝 而肝益盛 樂情促急 則氣激肺 而肺益削 太陰之臟局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 樂性深確 而喜情促急 樂性深確 則氣注腎 而腎益盛 喜情促急 則氣激脾 而脾益削 少陰之臟局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

32)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6) 이수경 외. 사상의학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1):41-54.

27) 손상곤, 김달래. 儒學者들의 心性情과 李濟馬의 性情氣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 8(2):11-40.

28) 이수경,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の 「病證論」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1-26.

하여 나오게 되며, 이는 선천적인 性理에 의한 性情氣에 해당한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형성된 臟局의 大小는 그 자체만으로는 병리적인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선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는 병리현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형성된 臟局大小로 인하여 肺氣, 脾氣, 肝氣, 腎氣가 나오게 되는데³³⁾, 이는 후천적인 性情氣의 작용인 哀氣, 怒氣, 喜氣, 樂氣³⁴⁾와 반응하여 病證이 유발될 경우에 일정한 경향성으로 진행할 가능성(浩然之氣-浩然之理의 관계)은 지니고 있다.

후천적인 知行과 修不修의 대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는 心慾의 闊狹에 따라 順動 또는 逆動함으로 臟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후천적인 性情氣의 작용은 性理와 情慾 중 情慾, 즉 心慾의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작용성인 哀氣, 怒氣, 喜氣, 樂氣가 順動³⁵⁾ 또는 逆動³⁶⁾함으로 따라서 이미 형성된 臟局의 大小로부터 나오는 肺氣, 脾氣, 肝氣, 腎氣에 영향을 미침으로 病證을 유발하게 된다. 順動하여 臟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氣로 보여지며, 이후 「臟腑論」과 「病證論」에서 表氣와 관련되어 설명되고 있다. 逆動하여 臟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情氣로 보여지며, 이후 「臟腑論」과 「病證論」에서 裏氣와 관련되어 설명되고 있다.³⁷⁾ 이러한 후천적인 性氣와 情氣 가운데 臟局에

해를 끼는 것은 性氣가 極하여 情氣가 動한 경우에 더 심한 손상을 끼쳐 壽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性氣보다 情氣를 더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³⁸⁾

앞서 心性과 心慾에 관한 고찰에서 性理와 情慾의 兩儀 心身的인 관점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관련지어 喜怒哀樂의 性情氣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性理는 선천적인 臟理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性情氣의 작용으로 설명되어지며, 情慾은 후천적인 心慾의 修不修에 따라 臟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후천적인 性情氣의 작용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도는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 이르러 의학적인 입장에서 天人性命으로 설명되고 있다. 天人性命은 크게 天人과 性命의 兩儀 心身 차원으로 天人-身, 性命-心으로 파악할 수 있다. 天機와 人事는 臟理를 이루는 선천적인 性情氣로 설명되며, 性과 命은 心慾의 闊狹이 작용하는 후천적인 性情氣로 설명된다. 好善之心의 天機와 惡惡之心의 人事는 聖인과 衆인이 차이가 없는 선천적인 性情氣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私心과 怠行은 心慾의 闊狹이 작용하므로 存心養性, 修身立命한 연후에야 聖인의 知行을 行할 수 있는 후천적인 性情氣가 작용하게 된다.³⁹⁾ 또한 「格致藁」 「儒

2-8 浩然之氣 出於肺脾肝腎也 浩然之理 出於心也 仁義禮智 四臟之氣 擴而充之 則浩然之氣 出於此也 鄙薄貪懦 一心之慾 明而辨之 則浩然之理 出於此也.
 33)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1 肺氣直而伸 脾氣栗而包 肝氣寬而緩 腎氣溫而畜.
 34)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3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
 35)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5 哀怒之氣 順動 則發越而上騰 喜樂之氣 順動 則緩安而下墜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順而下降.
 36)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6 哀怒之氣 逆動 則暴發而竝於上也 喜樂之氣 逆動 則浪發而竝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竝於上 則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竝於下 則脾肺傷.
 37)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4-12 是故 耳必遠聽 目必大視 鼻必廣嗅 口必深味 耳目鼻口之用 深遠廣大 則精神氣血 生也 淺近狹小 則精神氣血 耗也. 肺必善學 脾必善問 肝必善思 腎必善

辨 肺脾肝腎之用 正直中和 則津液膏油 充也 偏倚過不及 則津液膏油 燦也.
 4-17 心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膻中 光明瑩徹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付 頤臆臍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
 『東醫壽世保元』 「太陽人內觸小腸病論」
 15-10 或曰 吾子論 太陽人解體病治法 曰戒深哀 遠嗔怒 修清定 論噎膈病治法 曰遠嗔怒 斷厚味 意者 太陽人解體病 重於噎膈病而 哀心所傷者 重於怒心所傷乎. 曰否. 太陽人噎膈病 太重於解體病而 怒心所傷者 太重於哀心所傷也 太陽人哀心深着則 傷表氣 怒心暴發則 傷裏氣故 解體表證 以戒深哀遠怒 兼言之也. 曰然則 少陽人怒性 傷口膀胱氣 哀情 傷腎大腸氣 少陰人樂性 傷目腎氣 喜情 傷脾胃氣 太陰人喜性 傷耳腦頤氣 樂情 傷脾胃氣乎.
 38)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22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怒情動 怒性極則哀情動 樂性極則喜情動 喜性極則樂情動 太陽人 哀極不濟則忿怒激外 少陽人 怒極不勝則悲哀動中 少陰人 樂極不成則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則侈樂無厭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臟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不知也.
 39)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25 耳目鼻口 人皆可以爲堯舜 頤臆臍腹 人皆自不爲堯舜 肺脾肝腎 人皆可以爲堯舜 頭手腰腎 人皆自不爲堯舜

略觀仁」에서 私放逸欲之心이 驕矜伐夸之心과 齷詐侈懶之心으로 나뉜다고 하였는데⁴⁰⁾, 이는 仁義禮智 四端과 관련되어 私放逸欲은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 언급되는 私心과 怠行을 포괄하는 개념⁴¹⁾이며, 이로 인하여 후천적인 性情氣에 영향을 미침으로 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心慾으로 작용한다.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臟理와 心慾으로 太少陰陽人과 鄙薄貪懶人을 구분하였다.⁴²⁾ 太少陰陽人과 鄙薄貪懶人의 구분은 각각 臟局의 大小와 心慾의 闊狹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兩儀 心身的인 관점에서 心의 차원으로 心慾으로 인한 鄙薄貪懶人을, 身의 차원으로 臟理에 의한 臟局大小로 太少陰陽人을 나누는 것이다. 太少陰陽人의 臟局大小는 天理之變化로서 天稟之已定の 四象의 차원으로 설명되며, 이러한 장국대소는 바로 선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仁義禮智의 四臟之氣, 즉 四端이 擴充하게 되면 浩然之氣가 肺脾肝腎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鄙薄貪懶人의 心慾은 人慾之闊狹은 人事之修不修의 太極의 차원으로 설명되며, 이러한 心慾의 闊狹은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鄙薄貪懶의 一心之慾, 즉 仁義禮智를 棄하고 私放逸欲으로 빠지는 것을 明辨하면 浩然之理가 心에서 나온다고 하였다.⁴³⁾

하늘로부터 性으로 품부받은 仁義禮智의 性理(人性)는 인체에서 작용할 때 氣의 차원인 四端으로 작용하게 된다. 聖人이나 衆人의 臟理와 才能은 선천적으로 같은 것이며, 聖人과 衆人의 다른 것은 후천적인 心慾의 유무로 가려지게 된다.⁴⁴⁾

Table 3. The Classification of native and acquired Nature & Emotion according to SungLi and JungYok (性理와 情慾에 따른 선천적 및 후천적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구분)

구분	性理	情慾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天人 天機(耳目鼻口) 人事(肺脾肝腎)	性命(知行) 性(頤臆臍腹) 命(頭肩腰腎)
	好善之心 惡惡之心	邪心 怠心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責氣 / 氣宇之強弱	責心 / 心體之清濁
	人稟臟理	人趨心慾
	太少陰陽人 天理之變化	鄙薄貪懶人 人慾之闊狹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구분	浩然之氣	浩然之理
	선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작용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작용

이러한 선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와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를 가운데서 후천적인 性情氣를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性理와 情慾의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東醫壽世保元』 「性命論」에서는 心體와 氣宇라고 兩儀 心身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면서 責心, 責氣를 제시하면서 責心을 더 중요시하였다.⁴⁵⁾ 「四端論」에서는 理氣의 차원으로 一心

堯舜.

1-26 人之耳目鼻口 好善之心 以衆人耳目鼻口論之而堯舜未爲加一鞭也 人之肺脾肝腎 惡惡之心 以堯舜肺脾肝腎論之而 衆人未爲少一鞭也 人皆可以爲堯舜者以此. 人之頤臆臍腹之中 誣世之心 每每隱伏也 存其心養其性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知也 人之頭肩腰腎之下 罔民之心 種種暗藏也 修其身立其命 然後 人皆可以爲堯舜之行也 人皆自不爲堯舜者 以此.

40) 前述된 '東武公의 心性·心慾의 개념에 관한 고찰'에서 언급되었다.

41) 사상의학.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집문당, 서울, 2004:100.

42)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 人稟臟理 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 名曰 太陽人 肝大而肺小者 名曰 太陰人 脾大而腎小者 名曰 少陽人 腎大而脾小者 名曰 少陰人.
2-2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 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 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 貪人.

43)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3 五臟之心 中央之太極也 五臟之肺脾肝腎 四維之四象也 中央之太極 聖人之太極 高出於衆人之太極也 四維之四象 聖人之四象 旁通於衆人之四象也.

2-4 太少陰陽之臟局短長 四不同中 有一大同 天理之變化也 聖人與衆人 一同也 鄙薄貪懦之心地清濁 四不同中 有萬不同 人慾之闊狹也 聖人與衆人 萬殊也.

2-5 太少陰陽之短長變化 一同之中 有四偏 聖人 所以希天也 鄙薄貪懦之清濁闊狹 萬殊之中 有一同 衆人 所以希聖也.

44)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6 聖人之臟 四端也 衆人之臟 亦四端也 以聖人一四端之臟 處於衆人萬四端之中 聖人者 衆人之所樂也 聖人之心 無慾也 衆人之心 有慾也 以聖人一無慾之心 處於衆人萬有慾之中 衆人者 聖人之所憂也.
2-7 然則天下衆人之臟理 亦皆聖人之臟理 而才能 亦皆聖人之才能也 以肺脾肝腎 聖人之才能 而自言曰 我無才能云者 豈才能之罪哉 心之罪也

45)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1-37 存其心者 責其心也 心體之明暗 雖若自然 而責之

이 浩然之理로서 四臟之氣인 浩然之氣의 보다 본질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天稟之已定の 선천적으로 性情의 작용으로 형성된 臟局 大小는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가 불필요한 부분이지만, 후천적인 喜怒哀樂 性情의 未發과 已發을 恒戒하고 自反하여 中과 節에 이를 수 있도록 후천적인 知行이 필요하다고 하였고⁴⁶⁾, 선천적으로 타고난 天稟의 臟理를 오로지 하는 것은 人事之修不修, 즉 知行의 여부에 따라 命이 결정된다고 하였다⁴⁷⁾. 「臟腑論」에서는 心爲一身之主宰라고 하여 心의 작용을 중요시하였다.⁴⁸⁾

결국 臟局의 大小를 형성하는 性理 차원의 선천적인 性情氣의 작용은 天稟이므로 인간의 자율의지가 간섭될 여지가 없으므로 더 이상 논할 바가 없는 것이다. 반면에 臟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情慾 차원의 후천적인 性情氣의 작용은 바로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心慾이 喜怒哀樂의 未發과 已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恒戒 自反해야 되며, 특히 후천적인 情氣를 더욱 경계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이상에서 喜怒哀樂의 性情氣에 대한 개념을 살펴 보았다. 이외에 喜怒哀樂의 心⁴⁹⁾과 力⁵⁰⁾으로 표

현되는 개념도 있다. 喜怒哀樂의 心으로 표현된 것은 후천적인 情氣의 작용을 나타내며⁵¹⁾, 喜怒哀樂의 力으로 표현된 것은 선천적인 情氣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⁵²⁾.

(2) 선천적 및 후천적 喜怒哀樂의 性情氣는 모두 相成相資와 性極則情動의 원리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에서 喜怒哀樂의 性情의 작용으로 哀怒相成, 喜樂相資하며, 喜怒哀樂의 性이 極하면 喜怒哀樂의 情이 動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작용성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선천적인 性氣와 精氣의 작용은 「四端論」⁵³⁾과 「擴充論」⁵⁴⁾에서 확인되며, 후천적인 性氣와 精氣의 작용은 「四端論」⁵⁵⁾과 「擴充

滋肺元 而內以擁護津海 鼓動其氣 凝聚其津, 脾 以鍊達交遇之怒力 吸得膜海之清汁 入于脾 以滋脾元 而內以擁護膏海 鼓動其氣 凝聚其膏, 肝 以鍊達黨與之喜力 吸得血海之清汁 入于肝 以滋肝元 而內以擁護油海 鼓動其氣 凝聚其油, 腎 以鍊達居處之樂力 吸得精海之清汁 入于腎 以滋腎元 而內以擁護液海 鼓動其氣 凝聚其液.

者清 不責者濁 馬之心覺 點於牛者 馬之責心 點於牛也. 鷹之氣勢 猛於鷓者 鷹之責氣 猛於鷓也. 心體之清濁 氣宇之強弱 在於牛馬鷓鷹者 以理推之 而猶然 況於人乎. 或相倍蓰 或相千萬者 豈其生 而輒得 茫然不思 居然自至 而然哉.

- 46)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26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喜怒哀樂 未發而恒戒者 此非漸近於中者乎 喜怒哀樂 已發而自反者 此非漸近於節者乎.
- 47)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23 太少陰陽之臟局短長 陰陽之變化也 天稟之已定 固無可論 天稟已定之外 又有短長 而不全其天稟者 則人事之修不修 而命之傾也 不可不慎也.
- 48)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4-17 心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臆中 光明瑩徹 耳目鼻口 無所不察 肺脾肝腎 無所不忖 額臆臍腹 無所不誠 頭手腰足 無所不敬.
- 49)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12 太陽人 謹於交遇故 恒有交遇生疎人 慮患之怒心 (중략)
3-13 少陰人 謹於黨與故 恒有黨與親熟人 擇交之喜心 (중략)
3-14 少陽人 重於事務故 恒有出外與事務之哀心 (중략)
3-15 太陰人 重於居處故 恒有主內做居處之樂心 (중략)
- 50) 『東醫壽世保元』 「臟腑論」
4-9 肺 以鍊達事務之哀力 吸得賦海之清汁 入于肺 以

- 51) 「擴充論」의 처음 6조문은 「四端論」의 10조문 즉 선천적인 性情氣의 작용으로 인한 臟理의 形成을 확충하여 설명하는 내용이며, 「擴充論」의 7조문 이하는 후천적인 性氣와 情氣의 작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擴充論」 12~15조문에서 언급된 太少陰陽人의 喜怒哀樂의 心은 후천적인 情氣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喜怒哀樂의 心이 秉彜之敬心에서 나오게 되면 至善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敬의 의미는 『格致蒙』 「反誠箴」에서의 敬身, 「臟腑論」 마지막 조문의 「頭手腰足 無所不敬, 天人性命 中 知行에서의 心-性, 身-敬의 의미에서 볼 때, 天人性命의 命인 行에 해당되므로 情慾과 관련된 후천적인 情氣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52) 「臟腑論」은 사상의학적 생리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肺脾肝腎이 人事에 喜怒哀樂의 力으로 작용하는 선천적인 情氣의 작용을 나타내며, 정상적인 생리기능의 원동력이라는 의미로 力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사려된다.
- 53)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10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 哀性遠散 則氣注肺 而肺益盛 怒情促急 則氣激肝 而肝益削 太陽之臟局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이하 생략)
- 54)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1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 哀性 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 而哀衆人之相欺也 哀性 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 而怒別人之侮己也 怒情 非他 怒也 (이하 생략)
- 55)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22 哀怒相成 喜樂相資 哀性極則怒情動 (중략) 太陽人 哀極不濟則忿怒激外 (중략) 如此而動者 無異於以刀割臟 一次大動 十年難復 此死生壽夭之機關也 不可

論」56)에서 확인된다. 다음의 고찰에서 같이 살펴볼 수 있다.

(3) 선천적 및 후천적喜怒哀樂의性情氣는仁義禮智와 관련되어 설명된다.

「四端論」에서 언급된 太少陰陽人의 臟理를 형성하는 선천적인喜怒哀樂을性情氣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擴充論」조문에서 性은耳目鼻口가天機를察함에 있어서衆人이 서로欺侮助保하는 것으로喜怒哀樂의性이 바로聽視嗅味라고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偏大한臟局을 형성된다.情은肺脾肝腎이人事를行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欺侮助保하는 것으로怒哀樂喜의情이 바로怒哀樂喜이며, 이로 인하여偏小한臟局을 형성한다57)라고 설명하고 있다.哀怒의性情은欺侮라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였고,喜樂의性情은助保라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였고, 性은衆人이 서로欺侮助保함을聽視嗅味하는 것이고,情은別人이 나를欺侮助保하는喜怒哀樂임을 알 수 있다.

『格致藁』 「反誠箴」에서 仁義禮智와 喜怒哀樂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58), 智禮義仁을 哀怒喜樂으로 각각 관련지을 수 있다. 즉 不哀不怒하는

不知也.

2-24 太陽人怒 以一人之怒 而怒千萬人 其怒 無術於千萬人 則必難堪千萬人也 (이하 생략)

56)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12 太陽人 謹於交遇故 恒有交遇生疎人 慮患之怒心 此心 出於秉彝之敬心也 莫非至善 而輕於黨與故 每爲親熟黨與人所陷 而偏怒傷臟 以其擇交之心 不廣故也. (이하 13, 14, 15조문 생략)

57)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1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 哀性 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 而哀衆人之相欺也 哀性 非他 聽也 怒情促急者 太陽之脾 行於交遇 而怒別人之侮己也 怒情 非他 怒也
少陽人 怒性宏抱 而哀情 促急 怒性 宏抱者 少陽之目 察於世會 而怒衆人之相侮也 怒性 非他 視也 哀情 促急者 少陽之肺 行於事務 而哀別人之欺己也 哀情 非他 哀也
太陰人 喜性廣張 而樂情促急 喜性 廣張者 太陰之鼻 察於人倫 而喜衆人之相助也 喜性 非他 嗅也 樂情 促急者 太陰之腎 行於居處 而樂別人之保己也 樂情 非他 樂也
少陰人 樂性深確 而喜情促急 樂性 深確者 少陰之口 察於地方 而樂衆人之相保也 樂性 非他 味也 喜情 促急者 少陰之肝 行於黨與 而喜別人之助己也 喜情 非他 喜也.

58) 『格致藁』 「反誠箴-乾箴」
智之所往 天下不哀 仁之所來 天下皆樂 禮之所臨 天下不怒 義之所立 天下皆喜

것이 智禮이고, 皆喜皆樂하는 것이 義仁에 해당된다. 이러한 관계는 「擴充論」에서 언급한 哀怒는欺侮라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언급되고, 喜樂은 助保라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언급되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59)

또한 선천적인性情氣의 개념이 언급된 「擴充論」의 내용60)과도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념을 확대하여 생각하면 欺侮助保의 개념을 延納, 式度, 教誘, 撫插, 그리고 善惡, 智愚, 勤惰, 能否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Table 4. The relations of Sorrow-Anger-Joy-Pleasure(喜怒哀樂) and Benevolence-Righteousness-Propriety-Wisdom(仁義禮智) (喜怒哀樂과 仁義禮智의 관계)

智	不哀	不欺	延納	善惡
禮	不怒	不侮	式度	智愚
義	喜	助	教誘	勤惰
仁	樂	保	撫插	能否

太少陰陽人에 있어서 선천적인喜怒哀樂의性의 차원에서는 智禮義仁의 속성을 지니게 되며, 선천적인情의 차원에서는 禮智仁義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哀怒相成, 喜樂相資하는 원리와 性極則情動하는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肺大肝小한 太陽人을 예로 들면, 智의 속성에 해당하는 哀性이 極하게 되면, 禮의 속성에 해당하

59) 不哀-智, 不怒-禮로 연결하여 설명하였으므로, 不欺-智, 不侮-禮의 관계가 성립된다. 皆喜-義, 皆樂-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였으므로, 助-義, 保-仁의 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仁義禮智의 四德이나 四端의 차원에서 모두 긍정적인 개념이므로 不哀, 不怒, 喜, 樂이 긍정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欺侮하지 않는 것이 바로 智禮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개념이 되므로, 欺侮라고 표현되는 哀怒가 부정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60)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11 太陽人 雖至愚 其性 便便然猶延納也 雖至不肖人之善惡 亦知之也. 少陽人 雖至愚 其性 恢恢然猶式度也 雖至不肖 人之知愚 亦知之也. 太陰人 雖至愚 其性 卓卓然猶教誘也 雖至不肖 人之勤惰 亦知之也. 少陰人 雖至愚 其性 坦坦然猶撫循也 雖至不肖 人之能否 亦知之也.

상기의 내용을 선천적인性情氣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雖至愚와 雖至不肖의 愚不肖의 개념은 「性命論」에서 언급된 頤臆臍腹, 頭肩腰臀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心慾과 관련된 후천적인 私心과 怠行이며 知와 行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후천적인 知行을 잘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천적으로 太少陰陽人의 性理, 즉 臟理로서 가지고 있는 특성을 ‘便便然猶延納’, ‘人之善惡 亦知之’ 등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선천적인性情의 개념이라고 파악하였다.

는 怒情이 動하게 되는 것이다.

Table 5. The relations of native Nature, Emotion and Qi(性情氣) and Benevolence-Righteousness-Propriety-Wisdom(仁義禮智) (선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와 仁義禮智와의 관계)

	선천적인 性氣	선천적인 性氣의 속성	선천적인 情氣	선천적인 情氣의 속성	원리
太陽人	哀性遠散	智	怒情促急	禮	哀怒相成 哀性極則怒情動
少陽人	怒性宏抱	禮	哀情促急	智	哀怒相成 怒性極則哀情動
太陰人	喜性廣張	義	樂情促急	仁	喜樂相資 樂性極則喜情動
少陰人	樂性深確	仁	喜情促急	義	喜樂相資 喜性極則樂情動

「擴充論」에서 언급된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少陰陽人의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氣는 進學靜處로 표현되며, 材力知謀를 自反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太陽人을 예로 들면, 太陽人의 후천적인 性氣는 항상 進하려고만 하는데, 그 材를 自反하여 莊하지 않으면 進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進의 性氣는 智의 속성으로 볼 수 있으며, 自反해야 할 材는 義의 속성으로 볼 수 있다.⁶¹⁾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도 이상과 같은 동일한 구도로 설명할 수 있다.

太少陰陽人의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氣는 선천적인 性氣와 동일하게 智禮義仁의 속성을 지니

61) 太少陰陽人의 후천적인 性氣는 進學靜處의 개념은 天人性命 중 性, 知行 중 知에 해당하므로 領臆臍腹에서 自反하게 되면 籌策, 經綸, 行檢, 度量이 되고, 自反하지 못하면 驕矜伐尙之心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驕矜伐尙之心은 私放逸欲의 한 일면이므로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進學靜處를 事心身物 및 仁義禮智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材力知謀 또한 『格致彙』 「儒略天時」의 “莫驕爾智 爾智或淺 莫矜爾能 爾能或薄 莫伐爾材 爾材或拙 莫尙爾力 爾力或戾”를 볼 때 志貌材力을 智禮義仁로 각각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고, 太陽人이 자반해야 할 材는 義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行檢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太陽人의 性氣가 進하는 것은 선천적인 肺大에 의하여 후천적인 籌策이 능함으로 인한 것이고, 선천적인 肝小로 인하여 伐心이 있어 材에 해당하는 行檢에 能하지 못함으로 이를 自反하여야 進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擴充論」에서 “太陽之臍 宜戒伐心 太陽之臍 若無伐心 絕世之行檢 必在於此也.”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고 있다. 太少陰陽人의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情氣는 雌雄, 內守外勝하려고만 하는데, 오로지 하기만을 좋아한다면 私放逸欲의 心이 必過하게 된다고 하였다. 太少陰陽人이 人事와 관련하여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情氣로 인하여 傷臟하게 된다고 하였다. 太陽人을 예로 들면, 太陽人의 情氣는 항상 雄하려고만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태양인의 후천적인 怒情과 관련된다. 항상 雄하기만을 오로지하기를 좋아하면 放縱之心이 必過하게 되는데, 이는 鄙人과 동일하게 기예함으로 이루어지므로 怒情, 爲雄 또한 禮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도 이상과 같은 동일한 구도로 설명할 수 있다.

太少陰陽人의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情氣는 선천적인 情氣와 동일하게 禮智仁義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Table 6. The relations of acquired Nature, Emotion and Qi(性情氣) and Benevolence-Righteousness-Propriety-Wisdom(仁義禮智)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와 仁義禮智와의 관계)

	후천적인 性氣	후천적인 性氣의 속성	후천적인 精氣	후천적인 情氣의 속성	원리
太陽人	哀性 進	智	怒情 雄	禮	哀怒相成 哀性極則怒情動
少陽人	怒性 學	禮	哀情 外勝	智	哀怒相成 怒性極則哀情動
太陰人	喜性 靜	義	樂情 內守	仁	喜樂相資 樂性極則喜情動
少陰人	樂性 處	仁	喜情 雌	義	喜樂相資 喜性極則樂情動

결론적으로 太少陰陽人에 있어서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도 선천적인 性情氣와 동일한 仁義禮智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3. 心性·心慾과 喜怒哀樂의 性情과의 관련성, 그리고 鄙薄貪懶人과 太少陰陽人의 관련성

東武公의 心性·心慾과 喜怒哀樂의 性情氣는 공통적으로 仁義禮智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전술하였다. 이러한 측면이 心性·心慾과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관련성, 그리고 鄙薄貪懶人과 太少陰陽人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라 할 수 있겠다.

(1) 心性·心慾과 喜怒哀樂의 性情과의 관계

앞서 언급한 대로 太少陰陽人의 臟理를 형성하는 性理는 선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와 관련되고, 鄙薄貪懶人의 心慾을 형성하는 情慾은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性命論」의 天人性命 가운데 天人(身)은 性理에 해당하고 性命(心)은 情慾에 해당한다. 또한 「四端論」에 의하면 仁義禮智 四端을 擴充하면 浩然之氣는 肺脾肝腎에서 나오고, 鄙薄貪懶 心慾을 明辨하면 浩然之理는 心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므로⁶²⁾⁶³⁾, 臟理와 心慾은 浩然之氣-浩然之理의 관계이다.

요약하면 선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와 心慾과의 관계는 性理-情慾, 天人(身)-性命(心), 浩然之氣-浩然之理의 관계이며,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는 바로 心慾의 작용이다.

Table 7. The relations of Nature-Inclination of Mind and Nature, Emotion and Qi (心性心慾과 喜怒哀樂의 性情氣와 관계)

구분	性理	情慾
天人性命	天人	性命
兩儀心身	身	心
인간의 구분	臟理	心慾
	太少陰陽人	鄙薄貪懶人
理氣	浩然之氣	浩然之理
喜怒哀樂의 性情氣	선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

(2) 鄙薄貪懶人과 太少陰陽人의 관계

鄙薄貪懶人은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와 관련되며, 이 중에서도 후천적인 情氣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喜怒哀樂의 性情氣는 仁義禮智와 관련되어 설명되는데 鄙薄貪懶人은 仁義禮智를 棄하고 私放逸欲하는 자를 일컫고⁶⁴⁾, 후천적인

太少陰陽人의 情氣가 雌雄, 內守, 外勝하는 것을 오로지 좋아하게 되면 私放逸欲之心이 必過하게 된다⁶⁵⁾고 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서는 鄙薄貪懶人을 太少陰陽人과 1:1로 대응시켜 놓고 있다.⁶⁶⁾

그러나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에서와 같이 鄙人=太陽人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鄙人과 太陽人의 대응을 예를 들면, 太陽人은 후천적인 哀性(進)은 仁義禮智 중 智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哀性이 極하여 怒情이 動하게 되어 怒情(雄)에 해당하는 仁義禮智 중 禮의 속성을 버리고(棄禮), 禮의 慾에 해당하는 放縱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太陽人으로 타고난 사람이 후천적인 情氣로 인하여 放縱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鄙人이라고 일컫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太陽人의 情氣를 설명하는 若全好爲雄이라는 개념은 棄禮와 관련하여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薄人, 貪人, 懦人과 少陽人, 太陰人, 少陰人과의 관계는 이상과 같은 구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鄙薄貪懶人은 太少陰陽人이 후천적인 情氣의 작용으로 私放逸欲의 心慾으로 빠진 상태를 의미한다. 「臟腑論」 및 「病證論」과 관련하여 보면 太少陰陽人이 후천적인 情氣의 작용으로 인하여 裏氣를 상하게 함으로 裏病證이 유발될 수 있는 상태를 鄙薄貪懶人이라고 일컫는다고 정의할 수 있다.

62)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8 浩然之氣 出於肺脾肝腎也 浩然之理 出於心也 仁義禮智 四臟之氣 擴而充之 則浩然之氣 出於此也 鄙薄貪懶 一心之慾 明而辨之 則浩然之理 出於此也.
63) 心은 中央之太極이며 一身之主宰로 心慾에 따라 수명이 결정된다. 또한 東武公은 太極之心, 兩儀之心, 四象之心이라 하여 그의 철학적, 의학적 접근의 핵심이 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理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性理學에서 언급하고 있는 理의 개념과는 차이를 보인다.
64)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2-2 人趨心慾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 鄙人 棄義而偷逸者 名曰 懦人 棄智而飾私者 名曰 薄人 棄仁而極慾者 名曰 貪人.

65)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3-10 太陽之人 雖好爲雄 亦或宜雌 若全好爲雄 則放縱之心 必過也. 少陰之人 雖好爲雌 亦或宜雄 若全好爲雌 則偷逸之心 必過也. 少陽之人 雖好外勝 亦宜內守 若全好外勝 則偏私之心 必過也. 太陰之人 雖好內守 亦宜外勝 若全好內守 則物慾之心 必過也.
66)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原人第一統」
1-5 人趨欲心 有四不同 棄禮而放縱者 名曰鄙人(太陽人) 棄義而偷逸者 名曰懦人(少陰人) 棄智而飾私者 名曰薄人(少陽人) 棄仁而極慾者 名曰貪人(太陰人) 註: 四德爲慾心所陷而 有一面廢棄者 有三四面俱廢棄者 有右明而左暗者 有左明而右暗者 四德爲誠心所擴而 有一體充備者 有四體具微者 有善人信人者 有充實光輝者 有散而參差 直而高低 間間自別 層層不同 間間參差者 衆人也 層層高低者 賢良也 聖人衆人 萬殊也.

Table 8. The relations of Taeyangin(太陽人), Taeumin(太陰人), Soyangin(少陽人), Soeumin(少陰人) and The Mean(鄙人), The Weak(薄人), The Avaricious(貪人), The Sycophantic(懦人) (太少陰陽人과 鄙薄貪懶人の 관계)

臟理	후천적인 情氣	屬性	기전	心慾
太陽人	怒情 禮	雄	若全好爲雄 則放縱之心 必過也 棄禮而放縱	鄙
少陽人	哀情 智	外勝	若全好爲雌 則偷逸之心 必過也 棄義而偷逸	薄
太陰人	樂情 仁	內守	若全好外勝 則偏私之心 必過也 棄智而飾私	貪
少陰人	喜情 義	雌	若全好內守 則物慾之心 必過也 棄仁而極慾	懶

III. 總括 및 考察

1. 東武公의 心性·心慾에 관한 고찰에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東武公의 心性和 心慾은 太極의 차원이며, 仁義禮智와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다.

(2) 東武公은 인간을 性理와 情慾의 兩儀 心身의 인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性理의 관점이 臟理로 발전하여 太少陰陽人의 구분이 나왔으며, 情慾의 관점이 心慾으로 발전하여 鄙薄貪懶人의 구분이 나왔다.

2. 喜怒哀樂의 性情氣의 개념에 관한 고찰에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선천적인 性理에 의한 喜怒哀樂의 性情氣와 후천적인 心慾에 의한 喜怒哀樂의 性情氣로 구분된다. 性理는 선천적인 臟理를 형성하는 선천적인 性情氣의 작용으로 설명되어지며, 情慾은 후천적인 心慾에 따라 臟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후천적인 性情氣의 작용으로 설명된다.

(2) 선천적 및 후천적 喜怒哀樂의 性情氣는 모두 相成相資와 性極則情動의 원리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3) 선천적 및 후천적 喜怒哀樂의 性情氣는 仁義禮智와 관련되어 설명된다.

3. 心性·心慾과 喜怒哀樂의 性情과의 관련성, 그리고 鄙薄貪懶人과 太少陰陽人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에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心性·心慾과 喜怒哀樂의 性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와 心慾과의 관계는 性理-情慾, 天人(身)-性命(心), 浩然之氣-浩然之理의 관계이며, 후천적인 喜怒哀樂의 性情氣는 바로 心慾의 작용이다.

(2) 鄙薄貪懶人과 太少陰陽人의 관계를 살펴보면, 鄙薄貪懶人은 太少陰陽人이 후천적인 情氣의 작용으로 私放逸欲의 心慾으로 빠진 상태를 의미한다. 즉 太少陰陽人이 후천적인 情氣의 작용으로 인하여 裏氣를 상하게 함으로 裏病證이 유발될 수 있는 상태를 鄙薄貪懶人이라고 일컫는다고 정의할 수 있다.

IV. 參考文獻

1. 사상의학.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집문당, 서울, 2004.
2. 李濟馬. 格致藁. 덕흥인쇄소, 함흥, 1940.
3. 李濟馬 原著.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집문당, 서울, 2003.
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신일문화사, 서울, 1972.
5. 李濟馬 著. 이창일 譯註. 東武遺稿. 청계출판사, 성남, 1999.
6. 李乙浩. 東武四象說의 經學的 基調. 황제의학. 1977;2(2):310-322.
7. 지규용, 안규석. <동의수세보원 사단론> 중 사정의 작용기전 및 병리변화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53-60.
8. 손상근, 김달래. 儒學者들의 心性情과 李濟馬의 性情氣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6;8(2):11-40.
9. 김인태 외. 심경부주의 사상과 이제마 사상과의 비교.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9(2):19-38.
10. 설유경, 김종원. 중국·조선철학의 성정과 동의수세보원의 성정에 관한 문헌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51-74.
11. 구입본 외. 동무 『格致藁』에 나타난 경학사상에 대한 고찰(I). 동국대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1994;3:281-298.

12. 구입본 외. 동무 『格致藁』에 나타난 경학사상에 대한 고찰(Ⅲ). 동의병리학회지. 1995;10(1):1-20.
13. 백상룡. 동무 이제마의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0;13(1):117-145.
14. 이상기, 오상덕, 송정모. 사단론에 나타난 인간관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9(1):197-212.
15. 조황성. 성정과 표리증과의 관계. 사상체질의학회지. 1993;5(1):49-52.
16. 손상근, 송일병. 동무 이제마의 심신관에 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7;9(2):1-10.
17. 김진성. 이제마 성정론의 음양적 원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1):25-40.
18. 이수경 외. 사상의학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1998;10(1):41-54.
19. 김정향. 이제마 성정론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20. 노상용 외. 이제마의 성정병리론과 국부손상의 병기분석. 동의병리학회지. 2001;15(5):645-649.
21. 송일병. 東武公의 學問과 哲學思想.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1-7.
22. 설유경, 김종원. 사상의학에 나타난 성정의 개념과 뇌와의 상관성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17-33.